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11월 넷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화장품보존제 5종 사용기준 강화[뷰티누리]

中 '한류금지령'...다시 얼어붙은 엔터·화장품업계 [머니투데이방송]

中 솔로들도 'K-뷰티' 홀릭... '광군제' 타고 화장품 날았다 [뉴스1코리아]

(국외정보)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 연장 발표 안내

(해외화장품시장동향)

日, 최근 화장품 시장 주요 동향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 정보 15

협회 업무추진현황 18

행사 소식 25

회원사 뉴스 33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화장품보존제 5종 사용기준 강화 (‘16.11.25)

- 식약처가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음
- 이번 정보공개는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심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제품에 대한 안전수준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4703/cat/10>

“2018년까지 화장품 원료 159종 위해평가 관련 정보 전면 공개”(‘16.11.11)

-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24종에 대한 위해평가 전문이 내년 말까지 공개되며, 오는 2018년에는 사용제한 원료 가운데 살균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 총 135종의 위해평가 전문이 공개될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http://www.mfds.go.kr>)는 최근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2018년까지-화장품-원료-159종-위해평가-관련-정보-전면/>

내년부터 온라인판매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16.11.22)

-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함

- 관련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2/0200000000AKR20161122076000002.HTML?input=1195m>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코스타 리카 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16.11.17)

- 한국과 중앙아메리카(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의 새로운 수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협상에 참여한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이며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24개 부문의 모든 협정에 합의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4650/cat/10>

식약처 CGMP 인증 100개사 돌파 (‘16.11.15)

- CGMP(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화장품 기업이 100개사를 돌파했음
- CGMP 인증 기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20개사, 인천 18개사, 충남 14개사 순이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4621/cat/10>

손문기 처장, 화장품·의약품 제조업체 현장 방문(‘16.11.24)

-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장품 및 의약품 분야 규제 개선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족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음
- 식약처는 화장품·의약품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제조업체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해 완료하는 등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817>

한-伊 화장품협회, MOU체결(‘16.11.24)

- 대한화장품협회와 이탈리아화장품협회가 지난 17일 홍콩 컨벤션&엑시비션 센터(이하 HKCEC)에서 양국 협회 간 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 간 화장품 관련 제도·법령·시장 정보 등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음
- 현재 전 세계 화장품 시장 8위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와 9위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양국 간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화장품과 관련한 전 부문에 걸친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한-伊-화장품협회-mou체결/>

중국, 자유무역구 7곳 추가(‘16.11.24)

- 중국 정부는 지난 31일 7개의 자유무역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유무역구(FTZ)는 총 11개로 늘어남
- 새 무역구는 라오닝성을 비롯 저장, 허난, 후베이, 스촨, 쓰시성 그리고 충칭시에 위치할 것이라고 가오후창 상무부장이 말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중국-자유무역구-7곳-추가/>

中 '한류금지령'...다시 얼어붙은 엔터·화장품업계('16.11.24)

- 중국 광전국이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방송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한류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짐
- 실제 한국과 중국 동시방영을 예정했던 드라마의 일정이 취소되고, 중국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이 교체되는 등 분위기는 악화되고 있음

- 관련링크: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112218020148188

사드배치·금한령까지...화장품 시장 '사후약방문' 될까('16.11.23)

- 최근 중국에서 사드배치 여파로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일각에선 국내 뷰티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언론사 관찰자망(觀察者網)과 봉황망(鳳凰網)은 중국에서 '금한령'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보도했으며, 이들 매체는 그 근거로 중국 문화부가 지난 9월 이후 한국 영화, 드라마, 콘서트 등을 한 건도 승인 하지 않은 점을 꼽았음

- 관련링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94732>

한한령에 화장품업계 '긴장'('16.11.23)

- 중국인 관광객(속칭 요우커)들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로 인해 감소하면서 국내 화장품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중국 온라인 연예 매체 '이언왕'과 '팅신위러' 등이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을 발표하고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광고, 방송 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화장품 업계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임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한한령에-화장품업계-긴장/>

세계가 시샘하는 '美를 찾다'...승승장구 '한국 화장품'('16.11.16)

- K-뷰티 대표주자 한국 화장품이 높은 수준의 질과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 화장품은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의 필수쇼핑 아이템이 된지 오래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혁으로 각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830668>

중슬로들도 'K-뷰티' 홀릭... '광군제' 타고 화장품 날았다('16.11.16)

-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뷰티'가 역대 최대 거래액(약 20조6700억원)을 기록한 '광군제(光棍節)'에서도 훨훨 날았음
- 16일 화장품 업계와 알리바바에 따르면 광군제 기간 티몰글로벌에 입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음

-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831528>

“2021년 중국 더마코스메틱시장 10조원 예상”(‘16.11.24)

- 중국 더마코스메틱 시장은 환경 및 다양한 외 부요인으로 피부문제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 은 안전성이 검증된 화장품을 선호해 매년 20~30%씩 성장하고 있음
- 중국 더마코스메틱 시장 규모는 지난해 350억 위안(약 5조9514억원)에서 2021년이면 594.5억위안(약 10조1088억원)에 이를것으 로 예상됨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4701/cat/10/page/1>

홍콩서 본 대한민국 화장품은 이미 초일류 (‘16.11.19)

-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코스모프로 프 아시아 홍콩 2016(Cosmoprof Asia Hong Kong)’에서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참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한국의 화장품 초강국 등극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음
- 올해 전시 규모는 총 9만8000m²이며, 홍콩과 중국, 대만,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브라질 등 24개국의 2700여개 업체가 참가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4661/cat/10>

한국의 色, 대륙을 사로잡다('16.11.24)

- 지난 15일자 국제무역센터(ICT)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뷰티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400억 달러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 현재까지는 기초화장품이 강세지만 앞으로는 색조화장품의 잠재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임

- 관련링크:

<http://cosmoming.com/한국의-色-대륙을-사로잡다/>

[시장분석] 화장품 ODM과 OEM 산업의 성장 추이('16.11.23)

- 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브랜드회사는 디자인, 기획,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생산은 외부업체를 통해 이원화하는 '생산과 판매의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 ODM OEM 시장은 ① 화장품 유통채널이 브랜드숍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규 브랜드수의 증가에 따른 전체 생산물량 확대가 이루어졌고, ② 중소 화장품 업체들 상당 수가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100% ODM OEM 체제로 전환한 점, ③ ODM OEM 시장이 생산능력 및 제품경쟁력이 뛰어난 중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최근 몇 년간의 성장세를 시현할 수 있게 되었음

- 관련링크: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47>

“러 화장품 시장 진출은 인증에서 시작”('16.11.24)

- 현재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유라시아 이코노미 유니온(Eurasian Economic Union)이라는 EAEU를 구성, 공통된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로스테스트는 지난 6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커니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러-화장품-시장-진출은-인증에서-시작/>

男 사용 화장품 종류, 평균 4.5개('16.11.24)

-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세계 화장품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남성의 인당 월간 화장품 구매 비용은 세계 1위로, 2위인 덴마크와의 격차가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함
- 화장품에 대한 한국 남자들의 관심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대목임

- 관련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611240853164343>

◦ 국내외 정보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 연장 발표 안내

'16.11.15 중국 상무부에서는 「상무부 대변인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유예기간의 연장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을 종전의 '17.5.11에서 '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7년 연말까지 중국 10개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化粧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 및 최초 수입허가증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개 시범 지역: 천진, 상해, 항주, Ningbo, 정주, 광주, 심천, 중경, 복주, 평담 등

※본 공고는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mofcom.gov.cn/article/ae/ag/201611/20161101760012.shtml>)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 4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차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16.5.25	해관 총서	○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11.15	상무부	○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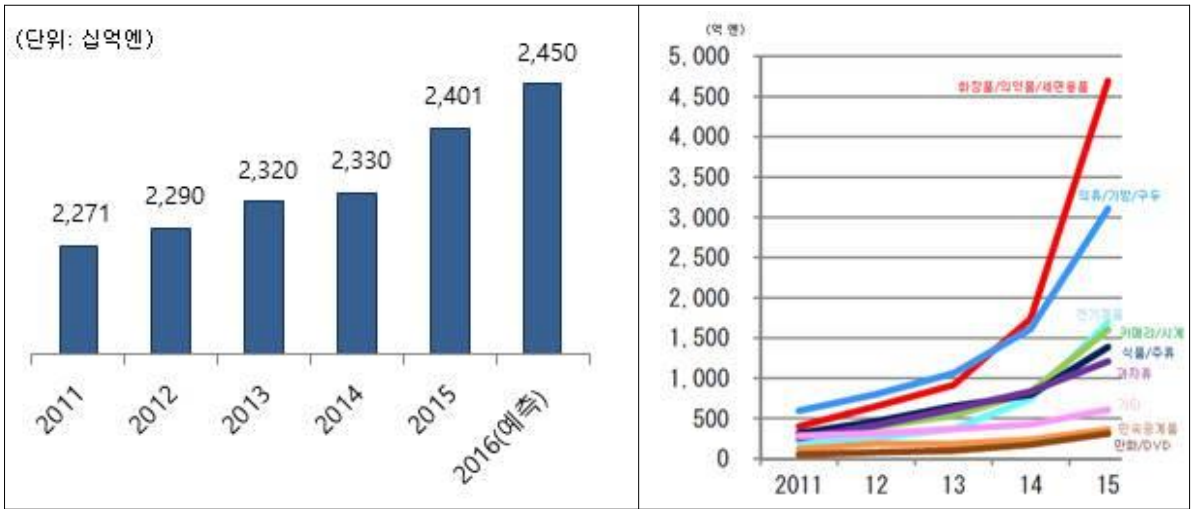
日, 최근 화장품 시장 주요 동향

- 외국인 관광객 구매 증가로 2015년 일본 화장품시장 비교적 높은 성장 -
- 日 기업, 온라인 판매 강화, 고부가가치 고가격대 상품 확대 주력 -

□ 일본 화장품 시장규모

-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일본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 성장한 2조 4,010억 엔을 기록
 - 일본 화장품 시장은 고도의 성숙 시장으로 2012년 이후 1% 안팎으로 성장하는 데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 기록
 - 2015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 증가
 - 일본 정책투자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의약품·세면용품 소비액은 2015년 약 4,7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특히 후지 경제연구소 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고가격대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시트마스크팩도 외국인 관광객 구매 확대로 전년 대비 18% 증가
- 2016년 시장도 전년 대비 2% 성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일본 백화점 협회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화장품 매출만은 호조를 보여, 올해 9월에는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했으나, 화장품 매출만은 6% 증가
 - 그러나 올해 3분기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4년 9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주춤해지고 있어 2015년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일본 화장품 시장규모 추이 및 외국인 관광객 품목별 소비 추이



자료원: 야노 경제연구소, 일본 정책투자은행

□ 최근 화장품 시장 주요 동향

○ 일본 화장품 대기업, 온라인 판매 강화

-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재구매 수요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화장품 대기업도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있음.
- 일본 최대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그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에 주력했었으나 올해 9월 온라인 시장 판매 전용 브랜드 ‘PLAYLIST’를 발매하면서 온라인 판매에도 본격 진입. 이번 브랜드는 직장과 육아로 백화점에 갈 시간이 없는 바쁜 20~30대 여성이 주요 타겟으로 웹을 통해 소비자가 선정한 아티스트가 고객별 관심 사항에 응대, 새로운 고객을 개척할 계획임.
- 카오도 올해 2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브랜드인 ‘소피’ 판매를 개시. 인터넷 판매 전문부서인 ‘E-커머스’를 새로 만들고, 일용품과 함께 판매하는 ‘KAO SHOP’을 아마존 및 라쿠텐, 야후 쇼핑에 개설함. 카오는 2020년까지 화장품 및 일용품의 인터넷 판매를 통한 매출액을 1,000억 엔 까지 확대할 계획

시세이도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좌)와 최근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 카오 화장품의 소피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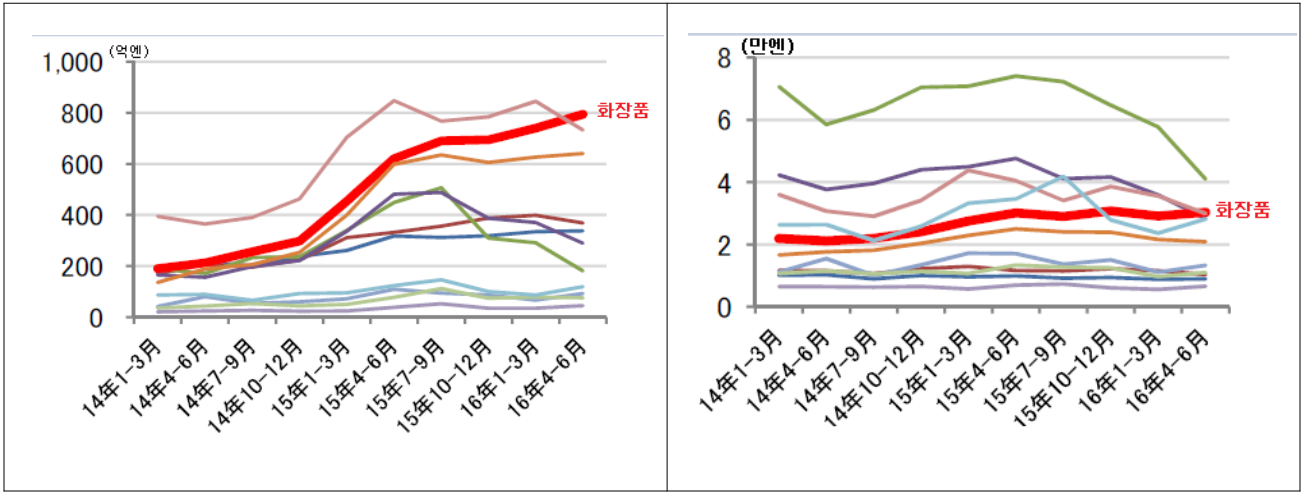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로 고부가가치·고가격대 상품 인기 상승

- 후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로 시세이도의 ‘얼티뮌(Ultimune)’이나 ‘클레드포보테(Clé de Peau Beauté)’, 고세 화장품의 ‘알비온(Albion)’ 등 고부가가치 화장품 판매가 확대
- 특히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의 싹쓸이 구매가 전반적으로 주춤해지고 있는 와중에도 화장품 구입액, 구입단가 등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고세 화장품은 2016년 4~9월 영업이익이 동기간 과거 최고치인 200억 엔에 달함.
- 이에 따라 고급 신상품도 발매되고 있는데, 일례로 가네보 화장품은 외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구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9월 10년만에 고급 신제품을 선보임. 브랜드 이름은 회사 이름과 같은 ‘KANEBO’로 백화점 위주로 판매

외국인 관광객 품목별 소비액(좌) 및 구입 단가(우)



자료원: 일본정책투자은행

○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확대 추세

-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업자 매출액 기준 2015년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2,403억 엔이며, 2020년까지 꾸준히 확대돼 2,861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됨.
-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확대의 요인으로서는 화장품 대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조 판매 분리, 제약 기업 등 화장품 생산 시설이 없는 이종업종 기업의 화장품 시장 참가 증가, 외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 등이 꼽힘.

□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도 확대 추세

-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던 일본 화장품 수입시장도 2016년 1~9월 기간에는 전년동기대 비 11.2% 성장
-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은 일본의 3대 수입국으로 특히 2016년 1~9월 일본의 대한 수입 액은 전년동기대비 76.8%나 증가함.
 - 한국에서 BB 크림 등의 원료를 수입하거나,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드러그 스토어 등의 일본 전통 문양이 있는 마스크팩 제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또한 올해에는 쿠션 파운데이션이 닥케이 트렌디의 상반기 히트제품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제품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임.

일본 화장품 수입시장(HS 3304)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1~9월	2016년 1~9월
프랑스	383.9	366.5	355.8	262.8	298.5(13.6%)
미국	246.3	230.0	210.7	156.3	172.4(10.3%)
한국	102.8	85.8	81.3	58.5	103.4(76.8%)
중국	76.2	73.8	77.1	60.0	59.8(-0.4%)
영국	53.0	61.9	71.9	53.8	41.1(-23.7%)
전체	1,106.4	1,101.4	1,066.5	792.9	881.8(11.2%)

자료원: WTA(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시사점

○ 일본 화장품 시장,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로 성장세

- 싹쓸이 구매로 알려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로 2015년 3%대 성장에 이어 올해에도 2%대 성장이 예상됨.

○ 우리 기업도 확대 중인 일본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 화장품은 BB크림, CC크림에 이어 쿠션 파운데이션까지 선보이면서 독특하고 참신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스크 팩의 경우에도 달팽이, 해조류 등 다양한 원료를 통해 일본 마스크 팩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옴.
- 참신한 제품을 통한 온라인 시장 및 위탁제조 시장을 통한 일본 소비자 공략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고부가가치 고급 화장품 시장 공략도 노려볼 만 함.
- 고기능·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능 및 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야노 경제연구소, 주간 화장, 일본 정책투자은행, 일본 경제신문, 오사카 무역관 종합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1호, 2016.11.18.)

- 동물실험금지조항 위반 화장품 유통·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 (안 별표2 개정)
 - 금지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함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016.12.12.(월)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18호, 2016.11.21.)

- 충분한 안전역 확보 및 제외국 조치사항 등을 감안하여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성분의 사용 기준을 변경함
 - ① 메칠이소치아졸리논
 - 사용 제품 유형 제한, (현행) 전제품 0.01% → (개정)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사용 금지
 - ② 비페닐-2-올(o-페닐페놀) 및 그 염류
 - 사용기준 변경, (현행) 페놀로서 0.2% → (개정) 페놀로서 0.15%
 - ③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 사용기준 변경, (현행) 0.3% → (개정) 0.05%
 -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 금지
 - ④ 클림바줄
 - 사용유형 제한, (현행) 전 제품 → (개정) 두발용제품으로만 제한
 - ⑤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사용금지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2017.1.9.(월)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자일렌 분석법, 6가크롬 분석법 추가

※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교육,세미나,행사 소식

○이탈리아화장품협회와의 MOU 체결



대한화장품협회는 이탈리아화장품협회(Cosmetic Italia)와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7일(목) 홍콩의 홍콩 컨벤션 & 전시 센터(HK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3층, Hall 3G, (Extraordinary gallery Summit)에서 이탈리아화장품협회(Cosmetica Itali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상근부회장(전무이사)과 이탈리아화장품협회 파비오 로젤로 회장(Fabio Rossell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서에는 ▲ 양국의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성 ▲ 기술교류 협력 ▲ 화장품 제도, 시장현황에 관한 정보공유 ▲ 산업계 전반적인 지식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화장품과 관련한 전 부문에 걸친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실무회의(KCA-JCIA working level meeting)



우리협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 및 화장품 관련 최신동향 교류를 위해 11.22(화)에 협회 회의실에서 미팅을 진행하였다.

회의는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및 노출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보 교류 ▲ 한·일 양국 법규의 최신변화 정보 교류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주로 일본의 화장품 제도 및 일본으로의 한국화장품의 수출절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일본측에서는 한국의 화장품 제도변화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우리 협회는 11월 15일(화), 11월 22일(화) 서울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139개사 139명, 135개사 137명의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12월 교육은 12월 6일(화), 12월 13일(화), 12월 22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에 대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 kcia.or.kr](http://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에 모조품 유통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①**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대상국가: 중국, 태국, 홍콩)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게시글 『16년 K-BRAND 보호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정은 대리(Tel : 02-761-4203, Email : jenko@kcia.or.kr)

①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

- 중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유통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 및 현지 파견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지원

②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 현지 침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모조품 유통 관련 침해 실태 조사 및 신청사에서 원할 경우 현지 정부 기관의 행정 단속 지원

※ 침해 조사 대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방	☐ 분쟁예방 전략 (현지화네이밍 등)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해외 무단 先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국 침해실태조사단 모집 안내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중국에서 모조품 관련 분쟁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 현지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모조품 유통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침해실태조사단을 모집하고자 함

※ 참여를 원하시는 회사는 아래 양식에 의거, 우리협회(고정은 대리, Tel: 02-761-4203, E-mail: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이름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파견 희망 도시

* ‘파견희망도시’는 중국 내 모조품 유통현황 의심 도시가 우선됨

* ‘침해실태조사단’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소속 출장자의 출장 경비(항공·숙박·교통·체제비 등 모든 비용)의 80% 지원, 기업 부담금 20%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행사 소식

○ (코트라)할랄-코셔 해외시장 개척 과정(부산) 참가신청 안내

코트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할랄-코셔 해외 시장 개척 과정(부산)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업계 관계자분들은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 수출 아카데미 교육과정

글로벌 경제시장 개척 과정
해외시장 진출 전략 과정
글로벌 전자무역 및 온라인 시장 개척 과정
해외 시장 진출 실무 과정
해외 투자 진출 실무 교육
할랄-코셔 시장 개척 과정
아랍 시장 진출 실무 과정
글로벌 자동차 부품시장 개척 과정
아시아-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
할랄-코셔 해외 시장 진출 과정
해외시장 진출 전략 교육
아랍인 소비자 시장 개척 과정

○ 일시 : 2019.12.1(목) ~ 2.28(금) 19회
○ 장소 : 부산광역시 1층, 제14호
○ 수업 인원 : 45명 ※ 동일 기관에서 다수의 참가자 신청 가능
○ 교육비 : 할랄-코셔 시장 진출 과정만 45명
○ 수료비 : 무료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new@kotra.or.kr

○ 교육 내용

중동, 인디, 말인 등 할랄-코셔 시장 정보 제공 및 전략 교육을 통한 할랄-코셔 시장 수출 기회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의 일정

(※ 강사수업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수 있음)

일자	강의 주제	시간	교육 내용
12/1 (목)	KOTRA지원사업 소개 및 세계 무역환경과 FTA 활용	9:30 ~ 10:30	- KOTRA 수출 관련 지원사업 소개 - 세계 무역환경과 CURE와 FTA 활용 방안
	할랄산업과 경제	10:30 ~ 12:30	- 할랄산업의 분류적 배경 및 역사 - 할랄산업의 개관 등
	할랄인증 핵심요소	13:30 ~ 14:30	- 할랄인증의 역사 및 주요 개념 - HACCP, 할랄도제 등 핵심요소
	할랄인증 실무 I - 중동	14:30 ~ 16:30	- GCC지역의 할랄인증제도 개관 - GAA 할랄인증 신청 절차 - 아랍의 할랄인증제도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 I - 중동	16:30 ~ 17:30	- 중동지역 인증제도의 활용 - 산업별 할랄인증 성공 사례 - 아랍인 비즈니스 활용
12/2 (금)	할랄인증 실무 II - 인도네시아	9:30 ~ 11:30	- 할랄인증제도 관련 사항과 전망 -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주요 요건 - 할랄인증관련 GAA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 II - 인도네시아	11:30 ~ 12:30	- 인도네시아 인증제도의 활용 - 산업별 할랄인증 성공 사례 - 인도네시아 마케팅 유망시장
	코셔인증 실무 및 마케팅 전략	13:30 ~ 15:30	- 코셔 인증 시장 개관과 전망 - 코셔 인증 관련 GAA - 코셔 시장 개척의 유통망 - 코셔 시장 마케팅 유망시장
	할랄인증 실무 III - 말레이시아	15:30 ~ 17:30	-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제도개관(MS1500) - 할랄인증관련 GAA
	할랄시장 마케팅 전략 III - 말레이시아	17:30 ~ 18:30	- 말레이시아 인증제도의 활용 - 산업별 할랄인증 성공 사례 - 말레이시아 마케팅 유망시장

○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18, 코트라, 송정현관빌딩 내 컨벤션홀
(5시철도 1호선 부산역 역차 후 5분 도보) <지하철로가 편리>
문의 연락처 : 051-903-9990~1, 999-3395

○ 문의처

- KOTRA부산지대 마케팅 02-3497-1068



○ (보건산업진흥원)한-중 보건의료사절단 참여 기관 모집 안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다가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국 광둥성 심천시 및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개최되는 ‘韓-中 보건의료협력 교류회’ 참여 기관(의료기관·의료기기·제약·화장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국 의료 동반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이 행사는 韓-中FTA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중국 심천시 및 중국 칭다오시에서 주 칭다오 총영사관 및 주 광저우 총영사관과 함께 개최합니다.

- 사업명 : 한-중 보건의료협력 교류회2016
- 기간 : ‘16. 12. 5(월)~12.10(토) / 5박 6일 (부분 참가 가능)
- * (심천·텐진)의료기기/화장품/제약, (칭다오)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제약
- 장소 : 중국 심천시, 칭다오시, 텐진시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보건산업진흥원,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 협력기관 : 코트라 심천·칭다오무역관, CCPIT, 심천의료기기협회, 텐진의료기기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 모집기관 : 의료기관, 의료기기·제약·화장품 기업 25개사 내외
- 프로그램 :

	의료기관	의료기기·화장품·제약
내용	. (7일) 유관기관 방문 . (8일) 한중 보건산업 협력 교류회	. (6일) CFDA 인증 설명회 . (6.8.9일) 1:1 수출상담회 . (5.7일) 현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특구 시찰
장소	칭다오	심천·칭다오·텐진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해외민간대사 초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자문상담회 개최 안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해외민간대사 초청 해외진출 중소기업 자문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12. 6(화) 12:40 ~ 16:30
- 장 소 : 본회 2층 릴리홀(강연), 대회의실(자문상담)
- 참 석 : 해외민간대사, 외환 . 수출입 컨설턴트, 중소기업
- 대상국가 : 중국, 베트남, 일본, 미얀마, 몽골, 카자스탄, 프랑스, 브라질, UAE, 카타르,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호주, 미국 등 15개국
- 내 용 : 해외진출 전문가 강의, 해외진출 관련 법 . 절차 등에 관한 자문상담, 해외진출 관련 외환 . 수출입 컨설팅 등

□ 문의처 및 신청처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협력부 전현호, (전화) 02-2124-3181
- 신청 : (팩스) 02-3775-1981, (이메일) jhh52@kbiz.or.kr

□ 참고자료 안내

- 해외민간대사 제도 : <http://www.kbiz.or.kr/user/nd29902.do>
- 해외민간대사자문상담회 참가신청 안내 : 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앙회소식 - 중소기업소식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OTRA)중남미 뷰티·화장품 후속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남미 뷰티·화장품 후속사절단 참가기업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사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남미 후속사절단 개요

- 파견기간/국가 : '16.12.4(일)~11(일)/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페루
- 참가분야/규모 : 뷰티, 화장품 분야/중소기업 약 10개사
- 현지 주요 타겟바이어
 - 중남미 주요 유통·전자상거래 바이어, 화장품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 주요내용 : 1:1 비즈니스 상담회, 메이크업 쇼케이스(페루) 등
- 참가비 : 없음
 - 단, 개별여비(항공임, 숙박비)는 참가기업 부담이며 코트라는 행사장 임차, 차량지원(단체이동 시), 바이어 상담주선 등 지원

□ 참가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16.11.14(월)~11.18(금) 18:00까지 이메일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 : 1) (첨부1) 사절단 참가신청서, 2) (첨부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3)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카달로그(영문)
- 문의처 및 접수처 : KOTRA 정상외교경제활용센터 후속사업1팀 공소연 대리
(02-3460-7686, serena@kotra.or.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참사무국) 베트남 자선 바자회 개최 안내

HIWC(Hanoi International Women's Club) 자선 바자회는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연례 자선 바자회로 올해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배우자회가 양국 국민간 우호 증진을 위해 한국 부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음식과 한국 물품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 바자회 후원에 관심있으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본 바자회에 후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코참 사무국(<http://korchamvietnam.com>, tel: 04 3555 334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종료 후 기업 후원 물품 사용 내역은 코참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명 : HIWC(Hanoi International Women's Club) Annual Charity Bazaar 2016
- 일시 : 2016년 11월 27일(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St. Paul American School - Splendora, Hoai Duc, Hanoi
- 협찬물품 예시 : 의류, 그릇, 가공식품, 화장품, 악세사리, 기념품 등 각종 제품
- 물품전달 기한 : 11월 18일(금)까지
 - ◆ 물품 배송지 : 대사관저 (100 Chua Ha, Dich Vong, Hanoi)
 - ◆ 물품 배송기간 : '16.11.7(월)~18(금), 2주간
 - ◆ 배우자회 담당자 : 홍광숙 (Tel : 098-840-0763)

※ 참고 : 전년(2015년) 행사 REPORT, 행사사진 (전년 2개 부스에서 올해는 3개부스로 확대 확보하였으며, 현재 락앤락,미원, 케이마켓, 신원, CJ, 루이까스텔, 등 우리기업이 부스에 후원참여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충북 오송은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 60여개의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위치한 보건의료행정타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이 이웃해 있어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지역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세계 유일의 연구개발 클러스터입니다.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에서는 연구에서 제품·개발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해 주고, 입주기업은 다양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오송은 경부·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과 20분 거리에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충북은 이 모든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우수기업들과 함께 오송바이오폴리스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락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2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신규 회원사 소개



(주)셀피코리아

- ▶ 회사명 : (주)셀피코리아
- ▶ 대표자명 : 임삼현
- ▶ 설립일자 : 2014.12.2
- ▶ 종업원수 : 9명
- ▶ 품목 및 브랜드 : 화장품/미용기기
[루비코스메톨로지]
- ▶ 2015년 매출액 : 1억8천만원
- ▶ 자본금 : 2억원
- ▶ 유통채널 : 시판
- ▶ 웹사이트 :
www.rubycosme.com
- ▶ 연락처 : 010-6518-9418

회사소개

(주)셀피코리아는 전문 뷰티 & 에스테틱 비즈니스 기업으로서, LIGHT THERAPY를 이용한 '뷰티'와 '헬스'제품을 전문으로 개발 제조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용 화장품 품을 함께 개발, 제조하여 직접 국내와 해외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미용기기용 LED를 이용한 피부개선 기기 3종을 연구개발 완료했고, 소비자용 화장품은 현재 4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LED와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Hair Laser 제품과 통증완화기도 개발 중입니다. 아울러 헤어케어 전문 화장품도 개발 중입니다.

(주)셀피코리아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R&D팀과 함께, 최신 트렌드에 앞서가는 제품을 개발, 마케팅 하여 국내와 글로벌 뷰티 산업의 선두에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사고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제품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신뢰를 통한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 창출'로 성장하는 진실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귀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코리아나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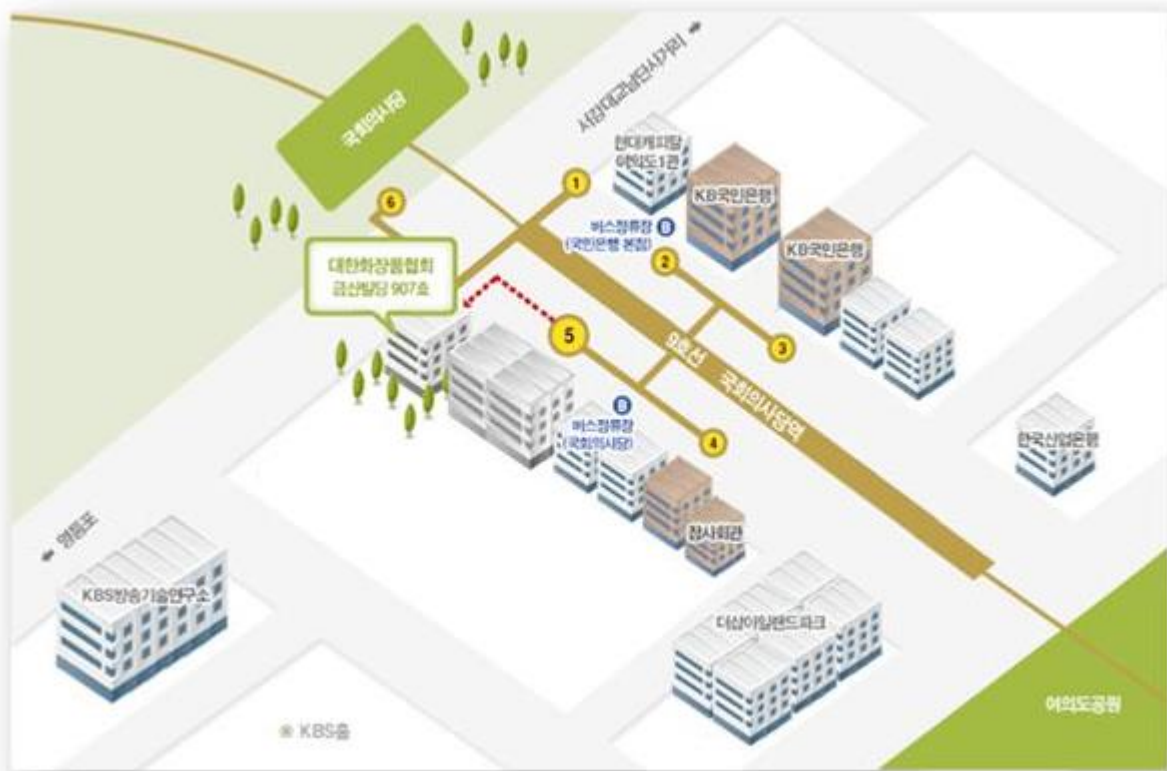
창립 28주년 (1988. 11. 15)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